

주가	환율	금리
+3.40	-1.20	+0.01
1,425.13 (코스피지수)	930.80원 (원/달러)	4.77% (3년만기 국고채)
코스닥지수	615.78	(-0.90)
다우(24일)	12,280.17	(-46.78)
나스닥(24일)	2,460.26	(-5.72)
닛케이	15,885.38	(+150.78)
엔-달러 환율(도쿄 17:00 기준)	116.11	(+0.30)
유로-달러 환율	1.3116	(-1.25)
3년만기 회사채	5.11%	(+0.01)
블금리	4.45%	(-0.02)

금호타이어, 친환경 타이어 출시

세계 최초... '라이오셀 코드' 적용

금호타이어(대표·오세철)가 세계 최초로 친환경 소재인 라이오셀(Lyocell) 타이어코드를 적용한 제품을 출시했다. 라이오셀은 라이오셀 타이어코드를 우선 일부 UHP(Ultra High Performance)타이어에 적용해 이달 말부터 본격 시판에 들어가는 한편, 향후 이 소재를 사용한 제품의 비중을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타이어코드란 타이어의 안정성과 내구성, 주행성을 높이기 위해 타이어 고무 속에 들어가는 섬유재료의 보강재로, 타이어코드의 소재로는 지금까지 폴리에스테르(일반 승용차용 고속주행 타이어), 나일론(비포장 도로용 타이어), 레이온(고속주행 타이어) 등이 사용돼왔다. 라이오셀 타이어코드를 이용하면 제조공정에서 발생했던 이황화탄소(CS2), 황화수소(H2S) 등의 유해물질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줄일 수 있고 대기·수질오염 등의 환경경해도 없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부품소재 신기술 신청 하세요

광주시 내달 15일까지 5곳 선정 지원

광주시는 다음달 15일까지 부품소재 분야에서 신기술을 개발·보유하고 있는 업체의 신청을 받아 5곳을 '부품소재 신기술 기업'으로 선정한다. 신기술기업으로 선정되면, 각종 연구개발사업 연계지원과 전문기업 등록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대상은 광주에 본사나 공장이 있고, 신기술을 개발해 사업화한 기업이다. 대상기술은 특허와 실용신안 등록된 기술, 정부출연연구소·대학 등과 공동연구개발한 기술, 산업기반기술 등이다. 문의 062-613-3880.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주택대출 금리 최고 0.34%p 급등

실수요자들 이자부담 '가중'

'11·15 부동산 대책' 여파 추가 상승 가능성 커

그동안 안정세를 보여왔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다시 들쭉거리고 있어 실수요자인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금융부담'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11·15 부동산 대책'과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8월 마지막 콜금리 인상 이후 하향 안정세를 보이던 금리가 상승세로 전환, 이달들어 은행별로 최고 0.34%포인트 급등하면서 대출 고객들의 이자부담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국은행의 추가 콜금리 인상 가능성과 지급준비율 인상에 따른 영향

등으로 향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이 커 실수요자들의 부담은 그만큼 가중될 공산이 커졌다. 27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이 정부의 11·15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최저 0.2%포인트에서 최고 0.34%포인트까지 올려 적용하고 있다는 것. 이같은 금리인상은 은행들이 정부시책에 발맞춰 영업점장 전격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등 사실상 대출 금리를 인상한 데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연동하는

CD금리가 소폭 상승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은행들은 0.2~0.3%씩 적용하던 영업점장 우대금리를 줄이기 시작했으며 CD 금리도 10월 말 연 4.57%에서 최근 4.62%까지 올랐다. 대형 은행 중 가장 늦게 금리를 올린 국민은행은 이번주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연 5.62~6.62%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38~6.58%였던 점을 감안하면 최저금리가 0.24%포인트나 급등한 것이다. 지난 20일 영업점장 전격 우대 금리를 0.2% 축소했던 신한은행도 이번주 주택담보대출 금리(국민 주택규모이상)가 연 5.61~6.71%로, 지난 주(5.37~6.67%)

에 비해 0.24%포인트 높아졌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는 10월말보다 0.04%포인트 오르는데 그쳤지만, 두 은행 모두 영업점장 전격 우대금리와 본점승인 우대금리를 각각 0.2%포인트와 0.3%포인트 낮춘 점을 감안하면 실제 체감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0.24~0.34%포인트 오른 셈이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시중은행 각 영업점장도 신규 대출부터 오른 금리를 적용해 대출을 해주고 있다. 다음달 새 아파트 입주율 앞둔 점도 (여·38)씨는 "주택담보대출로 1억원을 받아 입주할 계획인데 이번 금리인상으로 은행에 따라 연간 이자부담액이 20~34만원 더 늘게 됐다"며 "문제는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 입주를 포기해야 할지 고민중이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높아진 콜금리 인상 가능성, 지급준비율 인상에 따른 파급 효과 등으로 CD 금리가 계속 오를 가능성이 커 실수요자들의 이자부담이 가중될 것 같다"고 밝혔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광주 터미널 '유스퀘어' 합합소재 TV광고 눈길

유스퀘어(구 광주종합버스터미널)가 문화도시 광주에서 젊음과 문화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소재로 제작된 TV광고가 등장, 눈길을 끌고 있다. 광고는 젊은이들이 유스퀘어를 종합 문화광장으로 활용하는 문화트렌드인 합합소재 그래픽터 기법으로 표현했다. 그래픽터는 벽이나 화면에 낙서처럼 글자나 스프레이·페인트를 이용해 그리는 그림을 말한다. 광고는 그래픽터로 그려놓은 장면과 배경이 되는 합합음악, 등장인물인 DJ와 비보이, 보드맨들이 유스퀘어와 자연스럽게 어울린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동네 라디오방송으로 세금바로알기 홍보 나주세무서(서장 강석원) 직원들이 27일 나주방송(FM 96.1MHz)의 '세금 바로 알기' 코너에 출연, 세정을 홍보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종합부동산세' '세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등을 주제로 다음달 20일까지 하루 4회씩 계속된다. /나주=정철현기자 chjung@kwangju.co.kr

서울 아파트값 평균 5억 돌파

두달새 4,000만원 증가 강남구 7,845만원 올라

9월 이후 계속된 아파트값 급등의 영향으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5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종합부동산회사 부동산써브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의 평균가격(시가총액/총가구수)을 산정한 결과 5억311만원으로 분석됐다. 이는 2개월전인 9월 말의 4억5천967만원보다 무려 4천64만원 오른 것으로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는데

들어가는 돈이 2개월새 4천만원이나 증가했다는 이야기이다. 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2개월새 7천845만원이 올라 11억2천840만원이 됐으며 강동구도 7천290만원 상승한 5억2천945만원이다. 이어 오름폭이 큰 지역은 송파구 7천285만원(7억5천106만원→8억2천391만원), 서초구 6천589만원(9억2천147만원→9억8천736만원), 양천구 5천540만원(6억1천299만원→6억6천839만원), 광진구 5천451만원(4억8천876만원→5억4천327만원) 등이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환율하락·고유가 여파

전남 농수산물 수출 36% ↓

원화 절상과 고유가 여파로 올해 전남 도내 농산물과 수산물 수출실적이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가 전남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 전남도내 농·수산물 수출실적은 6천563만 1천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억199

만4천 달러에 비해 35.7% 감소했다. 수산물 수출은 지난해 상반기 6천65만 달러에서 올 상반기에는 3천400만4천 달러로 43.9%나 대폭 줄어 들었다. 농산물 수출도 지난해 상반기 4천134만4천 달러에서 올 상반기에는 3천162만7천 달러로 23.6%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전남도내 농·수산물 수출실적이 크게 감소한 것은 달러화와 연화 등 환율 상승과 고유가로 농·수산물의 생산단가가 오른 반면 가격경쟁력은 떨어져 수출액수가 크게 줄어든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수산물의 경우 품목별로는 성게가 26만3천 달러에서 1만1천 달러로 95.8%, 젓갈은 29만9천 달러에서 1만3천 달러로 95.7%, 전복은 167만1천 달러에서 10만3천 달러로 93.8% 감소하며 수출실적 감소세를 주도했다. 농산물의 경우 돼지고기 78%, 배추 73%, 배 69.1% 등 큰 폭 감소세를 보이며, 전남의 수출 실적 증대에 찬물을 끼

얹었다. 반면 피망은 올해 37만7천달러 여치가 수출돼 지난해에 비해 396.8%, 유자음료는 1천135만3천 달러로 267.0%, 버섯은 5만5천 달러로 239.1%가 늘었다. 수산물 가운데는 키조개(379.9%)와 한천(202.7%)의 수출 증가가 두드러졌다. 전남도 통상협력실 관계자는 "원화절상과 고유가로 인해 도내 농·수산물의 생산 단가가 크게 오른 반면 가격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져 수출액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ANTIQUE FURNITURE GAUDEDING

빛고을 명품가구 박람회 기념 SALE

4인용 소파: 1,200,000원

3인용 소파: 800,000원

2인용 소파: 500,000원

1인용 소파: 300,000원

식탁: 1,500,000원

의자: 500,000원

장롱: 1,000,000원

1층 안락가구전문점 (062) 955-8820

국내결혼, 국제결혼 전문업체

결혼정보 모모

결혼정보 모모는 국내외 결혼을 위한 전문 업체입니다. 국내외 결혼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혼정보 모모는 국내외 결혼을 위한 전문 업체입니다. 결혼정보 모모는 국내외 결혼을 위한 전문 업체입니다.

문의: (062) 223-3949

H.P: 010-9944-0682